

잡지 『농민생활』과 일상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Magazine *Farmer's Life* and the Daily Archives

원종훈(Won, Jong Hun)**

1.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배경
 - 2) 선행연구
 - 3) 연구 범위와 방법
2. 잡지 『농민생활』의 성격과 분석의 의의
 - 1) 『농민생활』의 성격
 - 2) 『농민생활』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3. 잡지 『농민생활』 분류와 기록가치
 - 1) 『농민생활』 기사내용 분류
 - 2) 『농민생활』의 기록가치 분석
4. 잡지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
 - 1)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의 구성요소
 - 2) 일상 아카이브 구현
5. 결론

*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잡지 『농민생활』과 일상 아카이브 연구」(2021)를 수정·보완한 것임.

** 영화 시나리오 작가(mirunamu183@hanmail.net).

■ 투고일: 2021년 03월 11일 ■ 최종심사일: 2021년 04월 07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9일.

■ 기록학연구 68, 151-204,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151>

〈초록〉

잡지는 동시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일상 아카이브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대전에서 발행된 잡지 『농민생활』의 내용과 기록가치를 분석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54년부터 1967년까지 14년 간 발행된 『농민생활』에 수록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농민생활』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인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치인, 농업학자, 교수, 의사, 만화가 등 전문직업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민관조직, 미국원조 및 4H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기독교잡지, 문학, 예술분야에서 오기 또는 누락되어 있거나 추정에 의존하는 기록들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시리즈로 분류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50, 60년대 농촌사회와 농민의 일상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일상 아카이브, 농민생활, 기록가치

〈Abstract〉

Magazines also contain the daily lives of contemporary ordinary people. These characteristics serve as the possibility of daily archives. This study aims to build daily archiv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magazine *Farmers' Life* published in Daejeon for those archival values. To do that, it classified the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in *Farmers' Life* for 14 years from 1954 to 1967, it analyzed personal and organizational information, and also it implemented the daily life of farmers and rural society.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on *Farmers' Life* summarized

into following five points. First, the value of Daejeon private archives proved. Seco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eople who were active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ety identified, and It classified by professional occupations such as politician, professor, agricultural scholar, doctor, and cartoonist, etc. Third,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able to collect that of some government organizations, public-private organizations, U.S. aids and 4H organizations. Fourth, certain evidence presented that help to correct the records that recorded wrongly or omitted or in need of speculation in the Christian Magazines, Literature and Art Fields. Fifth, the daily life of rural society and farmers classified into the series and organized into daily archives. This paper presented as a basic database to perceive the rural society and farmers' daily life in the 1950s and 1960s.

Keywords : daily archives, Farmers' Life, archival value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 60년대 대전에서 출간된 잡지 『농민생활』(이하 『농민생활』)의 내용과 기록가치를 분석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세 가지 심층적인 연구배경에서 의의를 지닌다.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 일상 아카이브, 아카이브 문화, 이 세 가지 연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에 관한 연구이다. 지난 2002년 5월 4일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이 창립되었다. 해당 포럼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대전, 충남지역의 역사기록(공공기록, 민간기록)을 토대로 지역 사회와 자치문화와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

… 흩어져 유실되고 있는 지역의 민간기록도 잘만 수집하고 정리하면, 지역의 문화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에 관한 기록학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적다.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에 관한 기록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농민생활』처럼 대전에서 생산된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연구가 절실하다.

둘째, 일상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이다. 기록학에서 논의된 일상 아카이브 연구는 유럽 역사학의 일상사 연구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으며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페르낭 브로델, 앙리 르페브르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아날학파의 일상 개념은 의식주와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의 기본 최소 단위이자 자기성찰의 의미부여가 불필요한 영역으로 설명 된다(안병직, 2006, 222).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기록학의 일상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이다(곽건홍, 2011, 9).

그뿐만 아니라 일상 아카이브의 범위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과 사회의 주축이 된 ‘노동자 일상 아카이브’ 개념으로 한층 분화하고 구체화 되었다.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을 일상 아카이브 형태로 재구성

함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바와 같다(곽건홍, 2012, 10). 그러나 일상 아카이브는 노동자 일상 아카이브에서 또 다른 갈래를 펼쳐야 보통사람들을 담은 기록화가 될 것이다.

근대 한국사회의 중심은 농민과 농촌이었고,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 농민의 수가 줄고 농촌의 비중이 적어졌다 해도, 농민은 노동자와 함께 한국사회의 커다란 두 축이었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국가주의 농촌운동시절의 농촌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척되어 왔으나 한국 전쟁 직후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 후반 농촌사회 연구는 활발한 편이 아니다. 또한 이 시기 농민과 농촌의 기록을 수집 분석한 기록학의 접근 역시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민생활』을 통해 1950, 60년대 농민과 농촌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일상 아카이브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아카이브 문화에 관한 연구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중앙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기록의 양적 질적 성장에 비해 민간기록의 영역은 성장세가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한 사회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본다면, 기록문화는 공기록을 다루는 공공부문과 민간기록을 다루는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록은 사회의 기록문화를 구축하는 중요 요소임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아카이브 문화는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Small Archives)로 나아가는 한편, 자율과 분권,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곽건홍, 2009, 27). 이러한 공간으로서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사기록물로서 아카이브’의 존재인데, 여기에 걸맞은 아카이브가 『농민생활』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대상인 『농민생활』에 관한 기록학적 연구에 있어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선행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록학의 일상 아카이브 연구이고, 둘째는 잡지 및 종이기록물과 관련한 기록학의 접근이다. 셋째는 『농민생활』과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 60년대 농민 잡지 연구와 기독교잡지 관련 연구이다.

먼저, 기록학의 일상 아카이브 연구이다.

이영남(2008)의 연구는 한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이제껏 주류였던 국가 중심의 기록을 넘어서서 개인과 마을의 기록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농민생활』을 통해 공 기록에서 담지 못한 1950, 60년대 민간기록을 정리하고자 하는 바와 연결되어 있다. 일상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광건홍(2009)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 아카이브 및 사회적 약자, LGBT 같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가 내포하고 있는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을 아카이브와 작은 아카이브 설립이 기록관리에 있어서 민주적 가치를 기여한다는 논의는, 이후 연구(2011)에서 일상 아카이브 개념으로 정립하며 본격적인 출발점을 제공하였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보통사람들의 삶이 담긴 기록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지점까지 진전된다. 후속 연구(2012)에서 일상 아카이브 개념을 집약하여 ‘노동자 일상 아카이브’로 정리한다. 심성보(2011)의 연구는 일상의 개념을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가장 세밀하게 접근하여 남기는 역사적 자료이자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가 일상 아카이브에 담아야 할 일상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진희(2011)에 따르면, 일상 아카이브의 요소를 “생활세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상자료”로 정의하고 있다(2011, 114). 이는 본 연구의 일상 아카이브 구축에 시

사점을 주고 있다. 김익한(2012)에 따르면, “의식주, 교육, 노동, 경제, 문화, 여가와 놀이, 그리고 경관, 공동체를”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2012, 41). 이는 『농민생활』을 통해 구성한 일상 아카이브 요소와 유사점이 있다. 오운택(2014)의 연구는 기존 일상 아카이브 연구의 심층을 확장시키거나 아카이브를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한 방법론으로 차용하고 있다. 김하나(2019)는 일상 아카이브의 새로운 형태로서 걷기 아카이브를 제시한다. 김하나의 연구는 걷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상 공간을 탐색하며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행위를 사회적 의미로 연결 확장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다.

둘째는 잡지 및 종이기록물과 관련한 기록학 연구이다.

잡지 및 종이기록물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경호(2005)의 방향은 만화라는 장르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경선(2017)의 『말』지 연구는 두 가지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하나, 잡지에 실린 개인들의 글이 사회 전체를 형성하는 기억의 증거로서 가치 있다는 평가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둘, 『농민생활』의 기사를 집합적·계층적 분류를 통해 일상 아카이브의 구성요소로 재조직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형희(2018)의 연구가 지역 잡지를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온 일상과 국가 중심의 기록영역 밖에 존재하던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셋째는 『농민생활』 및 발행기관인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 60년대 농민잡지 및 기독교잡지 관련 연구이다. 김홍수(2010)와 한규무(2010)는 기독교역사학 관점에서 기독교연합봉사회를 연구하였다. 김홍수의 연구는 기독교연합봉사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설립배경과 설립진행과정, 기독교연합봉사회가 펼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당시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참고하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실성을 더

하고 있다. 김홍수의 연구는 『농민생활』에 대해 간략히 전개하고 있으며, 1954년 발행 당시 『농민생활』 사장의 활동과 『농민생활』 간행으로 기독교연합봉사회와 농촌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이 중요 내용이다. 한규무의 연구는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세운 농민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민생활』 관련 내용은 간략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복간의 의미와 『농민생활』이 농민학원 졸업생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태일(2014)과 전영주(2019)는 국문학 관점에서 1929년부터 발행된 일제강점기의 『농민생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본 연구와는 관점과 시기가 다르다. 먼저 박태일의 연구는 『농민생활』이 1930년대 평양 지역문학의 핵심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민생활』의 발행기관, 최초 창간일, 발간취지를 밝히고 있다. 『농민생활』의 성격이 농촌계몽, 농민선교에 있으며, 편집방향이 종교교양, 농업기술지식, 독자투고, 문예지에 있음을 정리하고 있다. 전영주의 연구는 『농민생활』을 농민계몽과 농업개량을 목적으로 한 대중적인 농민운동기관잡지로 평가하며, 문예지 성격에 초점을 맞춰 시문학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성과는 『농민생활』이 지닌 기록정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박선지, 임은혁(2017)은 1960년대 발행된 『새농민』이라는 농민잡지 표지의 상징적 이미지와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1950, 60년대 농민잡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김주평, 임종빈(2000)연구는 1896년부터 약 100여 년 동안 기독교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어 기독교 잡지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생활』의 창간과 폐간연월일이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농민생활』의 기록가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1954년부터 1967년까지 14년 간 발행된 『농민생활』 중, 107권에 수록된 전체 기사에 대부분에 해당하는 1994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생활』의 기록을 분류하고 기록가치를 분석한다. 기록물을 직접 발굴하고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6월~12월까지 기록물 발굴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대전의 기독교연합봉사회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밝혔다. 다음으로 창고에 방치된 해당 기록물이 개방된 공간으로 옮겨진 후, 『농민생활』 소유권수를 조사하여 총 107권임을 확인하였다. 7월~9월까지 1차 조사를 하여 『농민생활』 기초 자료조사 및 목록집을 작성하였고, 9월~12월까지 2차 조사를 하며 미비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중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스캔 작업을 하였다. 총 6개월의 기초 자료조사를 마쳤다.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한다. 2장 1절에서는 『농민생활』의 성격과 특징은 물론 발행기관의 성격과 발행이유까지 기술하고, 『농민생활』의 총 발행목록 및 수집현황을 다룬다. 2장 2절에서는 『농민생활』을 왜 분석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의의를 전개한다. 3장 1절에서는 『농민생활』의 기사내용 1994건을 분류한다. 주제별 분류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시하고, 소속과 직업별, 거주지역별 분류는 농민들이 쓴 기사로 한정한다. 3장 2절에서는 『농민생활』의 기록가치를 분석하는데, 『농민생활』 기사에 나타난 실명과 조직을 토대로 인명 정보와 농업분야조직 정보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다음으로 『농민생활』의 연구가치를 분석한다.

3장의 기록학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4장에서는 『농민생활』 내용을 재조직하고 일상 아카이브로 확장하여 전개한다. 다시 말해, 『농민생활』

의 기사를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구성항목을 제시하여 일상 아카이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5장은 『농민생활』에 관한 분석 결과와 성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밝히며 맺는다.

2. 잡지 『농민생활』의 성격과 분석의 의의

1) 『농민생활』의 성격

(1) 『농민생활』의 발행과 성격

『농민생활』은 1929년부터 1967년까지 창간-폐간-속간-폐간의 과정을 거치며 발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발행시기를 3기¹⁾로 구분하였다.

〈표 1〉 『농민생활』 발행시기 구분

시기	1기	2기	3기
	1929년 6월~1943년	1954년 6월~1959년 12월	1960년 1월~1967년 9월
특징	창간-폐간	속간	폐간
발행주기	월간	월간	월간
발행지	평양	대전	대전
발행 및 발행주체	농민생활사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부, 평양승실전문학교)	농민생활사 (기독교연합봉사회 농촌사업부)	농민생활사 (기독교연합봉사회)

〈표 1〉에서 보듯, 『농민생활』은 기본적으로 농민생활사에서 발행하였다. 그러나 발행주체는 시기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1기는 일제강점기 1929년 6월부터 1943년까지로(연구홍, 1999, 50), 조선예수교장로

1) 1기와 2, 3기는 발행시기로, 2기와 3기는 편의상 1950, 60년대로 구분하였다.

회 총회 농촌부와 평양승실전문학교가 주축이 되어 발행하였으며 일제가 강제 폐간하였다(박태일, 2014, 340). 2기는 한국전쟁 직후 1954년 6월부터 1959년 12월까지로, 대전에 설립된 기독교연합봉사회가 농촌사업부를 통해 『농민생활』을 다시 발행하였다. 『농민생활』은 1954년 6월호를 ‘복간호’ 대신 ‘속간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전에서 발행된 『농민생활』에 연속성²⁾을 부여한 것이다. 3기는 1960년 1월부터 1967년 9월 폐간까지다. 『농민생활』은 1929년부터 1967년까지 농민잡지, 농촌계몽, 기독교 선교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발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보관 중인 『농민생활』 2기, 3기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에 맞춰 성격을 다시 살펴보았다.

『농민생활』의 기본적인 성격은 세 가지다. 첫째, 정기간행물로 보면 ‘농민잡지’에 속한다. 즉 농민을 주 독자층으로 하여 농촌지도자 양성과 농업기술소개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잡지내용으로 보면 ‘농촌계몽’을 추구한다. 즉 의식의 근대화와 농촌경제개발이 중요한 지향점이었다. 또한 문예지 성격을 추구한다. 독자들에게 소설, 시, 만화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셋째,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전파하였다.

(2) 『농민생활』 발행기관의 성격과 발행이유

『농민생활』은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발행하였다. 기독교연합봉사회는 1949년 10월 10일에 대전에서 창립되었는데, 그 성격은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2) 『농민생활』의 연속성은 류소 박사(柳韶, Dexter, N. Lutz)라는 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소 박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평양에서 발행된 『농민생활』의 사장(1938년~1941년)으로 있었으며, 『농민생활』 속간호의 사장(1954년~1961년)을 다시 맡았다.

첫째, 기독교연합봉사회는 기독교 선교단체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둘째,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추구하였다. 미국 남장로 선교부, 북장로 선교부, 미국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연합교회, 구세군, 모두 5개 교파가 모여 기독교연합봉사회 설립을 위한 에큐메니컬위원회를 구성하였다(연규홍, 1999, 40).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은 교회일치, 교회연합운동을 의미한다. 셋째, 기독교연합봉사회는 농촌계몽운동과 사회봉사사업을 실천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독교연합봉사회 현장에 농촌사업, 도시지도사업, 보건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농민생활』의 발행이유는 첫째, 기독교연합봉사회 조직의 활동, 둘째, 잡지 창간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연합봉사회는 농촌계몽운동과 사회봉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다. 1955년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촌사업부에서 농사보급사업을 했는데 그중 출판사업이 있었다.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사보급사업인 출판사업이 『농민생활』의 발행이유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생활』 발행이유가 1954년 6월 속간호에 실린 발행인 겸 사장 류소 박사의 창간사에 나타나 있다.

... 이 잡지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진실로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분이 쉽게 곧 실행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어서 여러분이 실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큰 이익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과 웃음으로써 채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간사에는 농민중심사고가 확연히 새겨져 있다. 즉 농민들에게 실생활에 이익이 되는 지식을 전하겠다는 것으로, 『농민생활』이 폐간될 때까지 추구한 방향이다.

(3) 『농민생활』의 발행목록 및 수집현황

『농민생활』은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1954년 6월 속간호를 시작으로 1967년 9월호까지 14년 간 '통권 160호, 낱권으로 총 150권³⁾을 발행하였다. 『농민생활』의 총 발행목록과 2019년 현재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집목록이 <표 2>이다.

<표 2> 『농민생활』의 발행목록 및 수집현황

발행연도	발행목록 / 권차		수집목록 (편철 수량)
195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6권 1호~7호	제16권 (1권)
195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17권(상) 1호~6호	제17권 상(2권), 하(3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제17권 (하) 7호~12호	
195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18권 (상) 1호~6호	제18권 상(2권), 하(1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제18권 (하) 7호~12호	
195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19권 (상) 1호~6호	제19권 상(1권), 하(2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12월(합본)	제19권 (하) 7호~12호	
195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0권 1호~12호	제20권 (2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195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1권 1호~12호	제21권 (2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196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2권 1호~12호	제22권 (2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196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3권 1호~12호	제23권 (1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196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4권 1호~12호	없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3) 현재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농민생활』만으로 한정하여 발행목록의 권차를 추정하였다.

196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5권 1호~12호	제25권 (1권)
	7월/8월(합본), 9월, 10월, 11월, 12월		
196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26권 1호~12호	제26권 (1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65년	목록 망실로 확인 하지 못함	제27권	없음
1966년	목록 망실로 확인 하지 못함	제28권	없음
1967년	9월호 폐간. 6월호 제외 나머지 확인 불가	제29권	제29권 6월호(날권 1권)

『농민생활』은 매달 월간지로 발행되었지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7, 8월호와 1957년 11, 12월호는 합본호로 발행되었다. 1965년, 66년은 발행목록을 비롯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1967년 발행분 또한 6월호를 제외한 나머지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 2019년 현재 기독교연합 봉사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농민생활』은 총 107권으로, 1954년~1961년, 1963년~1964년 전체, 1967년 날권 1권을 소장하고 있으나, 1962년, 1965년, 1966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소장 중인 『농민생활』은 1967년 6월호 날권 1권을 제외하면 모두 묶음 편철된 상태이다.

(4) 『농민생활』의 특징

『농민생활』의 특징은 농업전문성, 농촌계몽, 실용기술 전달,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가치, 문학과 만화작품, 독자소통 모두 6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농민생활』은 농업기술소개, 4H 활동 사례소개 같은 농업전문성을 추구하였다.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의 재배, 특집, 영농과 기술, 4H, 연재강좌, 일반기사에서 농업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농민생활』은 농촌계몽, 즉 구시대의 관습과 의식을 탈피하자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었다.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의 권두언, 머리말, 연재기사 폐풍교정, 만화 기사에서 농촌계몽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농민생활』은 농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기

술을 전달하였다.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의 재배, 식료가공, 농산가공, 나의 연구, 생활개선, 일반기사에서 실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농민생활』은 기독교 신앙과 윤리적 가치를 전파하였다.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의 종교수필, 머리말, 기독교농민학원 기사, 논단, 논설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농민생활』은 문예지의 특징을 지녔다. 다시 말해, 소설, 시, 희곡, 종교수필을 포함하는 문학과 만화작품을 연재하였다. 특히 초창기 한국만화의 선구자들이 많은 만화작품을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여섯째, 『농민생활』은 독자소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을 보면, 다양한 제목으로 독자의 농업기술을 소개하거나 독자 상호 간에 상거래는 물론 남녀 독자의 펜팔까지 주선하였다. 독자소통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독자질의, 애독자질의, 독자소리, 애독자소식, 독자영농, 농민뉴스, 애독자거래, 영농(농업, 농예)상담, 독자사교, 애독자싸롱, 독자의 메아리, 중계답, 삼애통신, 독자수기이다.

2) 『농민생활』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1) 『농민생활』의 보존·활용 측면에서 분석의 필요성

첫째, 『농민생활』은 정보보존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수집되어 있는 1954년 이후 발행된 『농민생활』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물리적 훼손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민생활』 전체 150권 중 29%에 해당하는 43권은 망실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수집된 기록 안에 있는 정보의 보전을 위한 기록물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상민, 2003, 205). 둘째, 『농민생활』의 내용이 부정확한 정보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14년 동안 발행된 『농민생활』 전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탓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

서 밝혔듯이, 김주평, 임종빈(2000)은 1896년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 기독교 단체에서 발행한 기독교 관련 잡지들을 정리한 연구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민생활』의 창간과 폐간연월일이 1954년 3월~1968년 8월로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2000, 156). 셋째, 『농민생활』의 내용을 통해 추정에 의존하는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강소천의 희곡 ‘크리스마극 박첨지와 산신령’은 최근까지도 발표지면과 시기를 추정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농민생활』 1954년 12월호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1954년 이후 발행된 『농민생활』의 내용을 파악하여 연구 활용하기에 제한적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잡지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잡지박물관의 한국잡지정보관에 영인본 1권, 국회전자도서관에 17권이 있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것이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일제강점기와 1954년 이후 발행된 『농민생활』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열람이 가능한 실물자료, 온라인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귀중본, 실물자료 중에서 1954년 이후 발행된 『농민생활』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한 마이크로자료형태로 수집, 보존, 활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수집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의 『농민생활』 수집현황(2021년 4월 현재)

	수집현황	주기사항
실물자료	10권11호(1938년12월), 제13권2호(1941년2월), 제13권5호(1941년5월), 제16권제1호(1954년6월)-제109호(1964년4월), 제111호(1964년6월)-제142호(1966년12월), 제145호(1967년4월)	실물 열람 가능

4) 강소천 문학에 관한 최근 연구인 홍창수 (2018). 강소천의 아동희곡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3, 313.을 보면, “박첨지와 산신령(1954~1955년 추정)”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해당연구의 참고문헌이 “강소천의 유작 스캔북 3권. 1954~1955년 추정”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강소천 홈페이지(www.kangsochun.com) 관리자에게 해당 작품에 관한 출처 정보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강소천의 가족(아들 강현구 선생)으로부터 해당 작품 출처에 관한 확인과 감사의 답장을 받았다. 이메일은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 모두 2차례에 걸쳐 받았음을 밝힌다.

온라인보기	10권11호(1938년12월), 제13권2호(1941년2월), 제13권5호(1941년5월)	귀중본
마이크로 자료	제1권: 16권1-7호, 17권1-5, 7-12호, 18권1-12호(1954년-1956년) 제2권: 19권1-12호, 20권1-12호, 21권1-12호(1957년-1959년) 제3권: 22권1-12호, 25권2-12호, 26권1-4호, 6-12호, 27권1-3호(1960, 1963-1965) 제4권: 27권4-12호, 28권1,3-12호(1965년-1966년)	1954년 이후 발행본을 마이크로 형태로 복제한 자료임

(2) 『농민생활』 분석의 의의

『농민생활』 분석의 의의는 모두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950, 60년대 농촌과 농민의 일상생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1954년부터 1967년까지 발행된 『농민생활』에는 당시 표준언어, 농촌에서 접하던 정치와 종교구호, 위생개념, 풍습, 음식, 여가생활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1950, 60년대 한국 농촌과 농민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는 통로로서 의의가 클 것이다.

둘째는 1950, 60년대 농업 분야의 다양한 조직과 업무, 조직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민생활』 기사의 필자를 분석하면 농업분야의 정부조직, 민관협조 조직인 한국 4H구락부, 미국 원조관련 조직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농민생활』 기사의 필자를 인명 정보로 정리하고, 용어표기를 시소러스로 구축하여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농민생활』에는 1950, 60년대 활동한 농민운동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정치계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소러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당시 사용한 용어표기와 의미 변천을 살펴보고, 이후 웹아카이브에서 『농민생활』 기록정보서비스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다.

넷째는 1950, 60년대 시대를 이해하는 기록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농민생활』은 현재 체계적인 수집, 분류, 기술이 되어있지 않은 기록물이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대 후반 사이 농촌사회의 변화상은 물론 저명작가들의 미발굴 만화, 소설, 시, 희곡과 같은 문화예술작품의 소

재를 증거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앞에서 논의한 네 가지 의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일상 아카이브의 토대가 될 것이다.

3. 잡지 『농민생활』 분류와 기록가치

1) 『농민생활』 기사내용 분류

『농민생활』의 목차와 본문 내용의 제목을 살펴보았다. 기사내용을 농업 및 농촌전문기사/일반기사/외부축사/좌담, 창작작품, 독자기사, 편집/발행기사로 분류하였다.

1954년 6월호에서 1967년 9월호까지 현재 직접 실물 확인이 가능한 『농민생활』 107권에 실린 ‘농업 및 농촌전문기사/일반기사/외부축사/좌담’, ‘창작작품’, ‘독자기사’, ‘편집/발행기사’는 모두 합해 1994건이다.

〈표 4〉 『농민생활』의 기사내용 분류

	농업 및 농촌전문기사/ 일반기사/외부축사/좌담				창작작품					독자기사				편집 발행
	농업 농촌 전문기사	일반 기사	외부 축사	좌담	종교 수필	시 시조	소설	만화	공트, 희곡, 야사, 수필	수기	독자 문의	독자 투고	기독교농민 학원	
건 ⁵⁾	1182	223	29	39	35	38	32	61	28	17	143	62	32	73
각 총계	1473건				194건					254건				73건
총계	107권 / 1994건													

〈표 4〉는 농업 및 농촌전문기사 총 1182건이고, 일반기사 총 223건이고, 외부축사 총 29건, 좌담 총 39건으로, 모두 합해 1473건이다. 창작작

5) 기사는 ‘건’으로, 창작작품은 ‘편’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내용분류 단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 ‘건’으로 통일하였다.

품은 총 194건이고, 그중 종교수필 35건, 시, 시조 38건, 소설 32건, 만화 61건, 콩트, 희곡, 야사, 수필, 노래악보 포함 28건이다. 독자기사는 총 254건이고, 그중 수기류 17건, 독자문의 143건, 독자투고 62건, 기독교 농민학원 32건이다. 편집/발행기사는 머리말이고 총 73건이다.

『농민생활』의 기사 내용을 분류한 결과, ‘농업 및 농촌전문기사/일반 기사/외부측사/좌담’의 비중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독자기사’와 ‘창작 작품’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주제별 분류

『농민생활』의 기사 1994건을 일상 아카이브의 구현을 고려하여 ‘농업 기술’, ‘종교/윤리’, ‘정치’, ‘국제’, ‘여성’, ‘농업행정’, ‘농업경제’, ‘교육’, ‘문화’, ‘의식주’, ‘보건위생’, 모두 11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표 5〉 주제별 분류를 통한 『농민생활』 기사의 재구성⁶⁾ 사례

기사분류 주제별 분류	농업농촌 전문기사	일반 기사	외부 측사	좌담	종교 수필	시 시조	소설	만화	콩트, 희곡 야사, 수필	수기	독자 문의	독자 투고	기독교 농민학원	머리말	합계
농업 기술	1061	10	26	3							142	61	23	26	1352
종교 /윤리		33			35	1							5	24	98
정치		2	3					1				1		1	8
국제	19	5		36											60
여성		10						1			1				12
농업 행정	12														12
농업 경제	37	5						1						5	48
교육	52	14						3					4	1	74
문화	1	4				37	32	55	28	17				16	190
의식주		68													68
보건 위생		72													72
합계	1182	223	29	39	35	38	32	61	28	17	143	62	32	73	1994

〈표 5〉을 보면, 『농민생활』 기사내용 총 1994건 중에서 농업기술이 1352건으로 67.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화 190건으로 9.53%, 종교/윤리 98건으로 4.91%, 교육 74건으로 3.71%, 보건위생 72건으로 3.61%, 의식주 68건으로 3.41%, 국제 60건으로 3.01%, 농업경제 48건으로 2.41%, 농업행정 12건으로 0.60%, 여성 12건으로 0.60%, 정치 8건으로 0.40% 순으로 나타났다.

① 주제별 분류와 기사제목7)

위에서 살펴본 주제별 분류 중에서 〈의식주〉를 대표 사례로 수록하였다.

〈표 6〉 의식주

주제	발행	기사제목	기사 건	합계
의식주	1955년 3월	소화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청국장 만들기	1	68
	1955년 6월	생활세계 - 옷 생활과 우리농민	1	
	1955년 12월	개선생활 - 방한의 준비	1	
	1956년 2월	주부자치 - 낚은옷을 이용하자	1	
	1956년 7,8월	주부자치 - 여름철 식사	1	
	1956년 11월	맛좋은 김장 담그기	1	
	1957년 2월	생활개선 - 농한기의 식사 - 목욕탕 설계	2	
	1957년 4월	생활개선 - 만두와 고구마 과자 만들기 우유의 상식	2	
	1957년 5월	생활개선 - 두부만들기와 요리	1	
	1957년 6월	생활개선 - 농촌부녀자의 활동복 농번기에 편리한 보존음식	2	
	1957년 7,8월	생활개선 - 농촌부녀자의 활동복	1	
1957년 9월	9월의 생활개선 - 식사와 요리	1		

6) 광건홍 (2015). 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195. 기록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7) 이하 『농민생활』의 기사제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발행 당시의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따라서 당시 한글맞춤법 표기와 띄어쓰기는 현재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1957년 10월	겨울의 아채음식	2
	농촌생활 3원칙	
1957년 11,12월	생활개선 - 생활개선이야기	2
	- 연회상 차리기	
1958년 1월	생활개선 - 콩나물 기르기와 요리	2
	농산가공 - 고구마엿 만들기	
1958년 2월	생활개선 - 옷개선은 이렇게	2
	생활개선 - 감주와 식혜 만들기	
1958년 3월	생활개선 - 옷개선의 이모저모	1
1958년 4월	생활개선 - 결혼식복의 어제 오늘 내일	1
1958년 5월	생활개선 - 상복의 간소화	1
1958년 7,8월	생활개선 - 즐거운 식탁을 위하여	2
	- 술에 관하여	
1958년 9월	생활개선 - 손님대접	1
1958년 10월	생활개선 - 식단표란 무엇인가	2
	- 밥타령	
1958년 11월	생활개선 - 메주의 개량	1
1958년 12월	생활개선 - 맛있는 다꾸앙	1
1959년 4월	생활개선 - 번소의 개량	2
	- 농촌의 의복개선	
1959년 7,8월	생활개선 - 아궁이	1
1959년 9월	생활개선 - 잘짓고 잘짓자	2
	세탁기 만들기	
1959년 11월	생활개선 - 어린이와 어른들 음식	2
	- 부엌이야기	
1960년 5월	생활개선 - 농번기를 위한 음식	1
1960년 7,8월	나의 집 취사장	1
1960년 9월	생활개선 - 나의 식빵생활	1
1960년 11월	생활개선 - 부녀자의 작업복 만들기	2
	보다 맛있는 김치 담그기	
1961년 7,8월	생활개선 - 조리대 만드는 법 (삼화)	3
	- 찬장 만드는 법 (삼화)	
	- 콩젓 만드는 법	
1961년 9월	내가 지은 보건주택 - 흙담으로 지은 주택	1
1963년 1월	방한모의 장갑 만들기	1
1963년 6월	채소요리 몇 가지	1
1964년 6월	생활개선 - 능률적인 부엌의 구조	3
	- 파리장 만들기	
	- 구황식물과 식용법	
1964년 7월	생활개선 - 활동적인 작업복	4
	- 헌옷으로 어린이옷	
	- 장마철 옷 손질	
	초가지붕의 유산동 처리	

1964년 8월	생활개선 - 어린이의 여름철 생활 - 가볍고 시원한 원피스 - 만들기 쉬운 아채음식	3
1964년 9월	즐거운 추석 음식 농번기 공동 취사와 탁아소	2
1964년 10월	영양좋은 콩음식	1
1964년 11월	김장김치	4
	겨울과 우리집 단장	
	합리적인 세탁	
	시탕수수로 옛 만들기	

〈표 6〉의 의식주는 총 68건에 이른다. 68건 전부 ‘일반기사’로서, 농촌사회의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일 년 사계절의 의식주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② 소속과 직업별 분류

『농민생활』의 기사내용 1994건 중에서 ‘독자기사’는 총 254건으로 12.74%에 해당한다. 독자기사 필자의 소속과 직업을 농업, 교육, 국방, 기타 분야로 나누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자영농, 기독교농민학원 수강생과 졸업생, 농민운동가, 농원, 양봉업, 원예조합, 농민단체인 4H구락부, 특용작물농가 종사자들이 확인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중학교 교장, 농업고등학교 학생, 신학대학, 농과대 대학생이 확인된다. ‘국방분야’에서는 군종부 소속, 보병중대, 육군, 해병이 나온다. ‘기타분야’에서는 교회, 약방, 축산가축병원장, 경찰서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농민생활』의 독자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주 독자층은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분야 종사자이고, 학교와 의료계통에 소속된 식자층과 신학대학과 교회와 같은 종교분야 종사자도 독자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거주지역별 분류

『농민생활』 기사란에 필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분석하면 독자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독자기사’ 254건 중에서 동일 거주지와 동일인물의 것을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 대상이 된 필자는 모두 합해 162명이다. 독자의 거주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 ‘15곳’, 경기도 ‘21곳’, 경남 ‘25곳’, 경북 ‘28곳’, 전남 ‘24곳’, 전북 ‘11곳’, 서울 ‘10곳’, 충남 ‘16곳’, 충북 ‘11곳’, 제주 ‘1곳’에 독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생활』이 전국 각지로 유통되었음을 가리킨다.

2) 『농민생활』의 기록가치 분석

『농민생활』의 기록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가치는 정보가치와 증거가치로 구분한다. 정보가치는 생산자와 상관없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인물, 사물, 현상에 주목하는 반면, 증거가치는 생산자와 그 활동 전반을 다룬다고 정의한다(이승억, 2018, 187). 쉘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에 따르면, 후대 연구자들에게 있어 참고와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아카이브(Archives)로 평가한 바 있다(김상신, 2016, 7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과 연구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인명 정보

『농민생활』에는 당시 사회 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한 인물들이 실명으로 발표 한 기사(이하 실명기사)들이 존재한다. 주요인물 14명을 대표로 하여 인명 정보표로 제시하였다. 주요인물의 직업을 정치인, 농

업학자, 농민운동가, 대학교수, 의사, 기자, 만화가, 소설가, 아동문학가로 구분하였고, 주기사항에는 직책과 대표적 활동 등을 기술하여 인물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7〉 주요 인명 정보

직업	인물	기사제목	발행	기사건	주기사항
정치인	함태영	함부통령 각하의 친필	1955년 6월	1	부통령
	박정희	농민에게 드리는 연두사	1963년 1월	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농업학자	우장춘	채소종자가 농가의 손에 건지기까지	1954년 8월	1	중앙원예기술원장 (육종학자)
농민운동가	배민수	한국 농촌재건의 열쇠	1954년 7월	28	기독교농민학원장 (신학박사)
		한국 농촌재건의 정신	1954년 8월		
		한국 농촌재건의 인물	1954년 9월		
		부락농촌 지도자가 되어야할 과정	1954년 10월		
		대전기독교 농민학원	1954년 11월		
		기독교 농민학원	1955년 1월		
		농촌재건의 신앙동지를 부른다	1955년 3월		
		우리의 삼대강령	1955년 4월		
		신앙생활과 물질생활	1955년 5월		
		신앙생활과 물질생활	1955년 6월		
		대전기농학원의 지도자 양성 7개월	1955년 7,8월		
		텍사스로부터 온 선물	1955년 9월		
		폐풍교정 - 미신타파	1955년 10월		
		폐풍교정 - 관혼상제	1955년 11월		
		폐풍교정 - 관혼상제	1955년 12월		
		폐풍교정 - 장례	1956년 2월		
		폐풍교정 - 남녀차별	1956년 3월		
		폐풍교정 - 남녀 동등	1956년 4월		
		폐풍교정 - 농촌여성에게	1956년 5월		
		기독교농민운동	1956년 9월		
		기독교농촌운동	1956년 11월		
		폐풍교정	1957년 4월		
		폐풍교정 - 식탁	1957년 5월		
삶의 열쇠	1957년 6월				
기독교농민학원수강생 모집에 대하여	1958년 2월				
농시계획은 세워졌는가?	1958년 4월				
농촌교역자의 새로운 방법	1959년 7,8월				
농촌교회의 금후진로	1960년 10월				

대학 교수	유달영	가을채소의 주요 품종	1955년 7.8월	10	서울대 농과대학, 전 재 건국민운동본부장		
		여름파종 양배추 재배요령	1957년 7.8월				
		봄파종양배추 기르기	1958년 1월				
		온상육묘의 초기관리	1958년 2월				
		양파의 자가 채종요령	1958년 4월				
		과채류의 육묘초기관리	1959년 1월				
		과채류의 정식법	1959년 6월				
		채소의 비료요소와 결핍	1959년 7,8월				
의사	문창모	미라리아(학질)의 예방법	1954년 6월	4	세브란스병원원장(14대) *대한결핵협회 초대 사 무총장(1953년)		
		이질병에 대하여	1954년 7월				
		장질부사(열병)와 그 예방법	1954년 8월				
		회충	1954년 9월				
	이용설	병인이 생겼을 때	1957년 5월	14	세브란스병원원장(15대)		
		어린이 기르는데 대하여	1957년 6월				
		어린이 기르는데 대하여	1957년 7,8월				
		인분비료와 기생충	1957년 9월				
		산아제한에 대하여	1957년 10월				
		결핵에 대하여	1957년 11,12월				
		폐결핵병에 대하여	1958년 1월				
		폐결핵병에 대하여	1958년 2월				
기자	서제숙	어린이의 지적지도	1956년 6월	1	동아일보 *한국어기자클럽 회장 역임		
		김용환	만화			농사꾼코주부(1)	1955년 7,8월
						농사꾼코주부(2)	1955년 9월
						농사꾼코주부(3)	1955년 10월
						농사꾼코주부(4)	1955년 11월
신동헌	만화	농민만평	1957년 2월	1	*대표작 신문연재시사 만화 '두꺼비' (1955년~1994년)		
		비료 노다지	1957년 3월				
만화가	신동헌	만화	풍작자랑	1957년 7,8월	2	*한국 최초 극장용 애니 메이션 '홍길동(1967년) 감독	

	이상호	만화	양지영감	1957년 5월	3	*대표작 '꼬마 갈비 (1962년)'
			양지영감	1957년 10월		
			양지영감	1959년 1월		
소설가	한혹구	장편 소설	마을을 내려다보며 (1)	1956년 5월	15	*수필문학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2)	1956년 6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3)	1956년 7,8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4)	1956년 9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5)	1956년 10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6)	1956년 11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7)	1956년 12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8)	1957년 1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9)	1957년 2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0)	1957년 3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1)	1957년 4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2)	1957년 5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3)	1957년 6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4)	1957년 7,8월		
			마을을 내려다보며 (15)	1957년 9월		
아동 문학가	강소천	희곡	크리스마스극 박첨지와 산신령	1954년 12월	1	*소천아동문학상 제정 (2019년 현재 51회)

〈표 7〉의 인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치인 실명기사는 ‘함태영 부통령’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각 1건 씩 존재한다. ‘농업학자 우장춘’ 실명기사 1건, ‘농민운동가이자 기독교농민학원 원장 배민수’ 실명기사 28건이 확인된다. 대학교수 실명기사는 ‘서울대 농과대학 유달영 교수’ 10건이 존재한다. 의사 실명기사는 ‘14대 세브란스 병원장 문창모’ 4건, ‘15대 세브란스 병원장 이용설’ 14건이 존재한다. 기자 실명기사는 ‘동아일보 서제숙’ 1건이 있다. 만화가 실명기사는 ‘김용환’ 4건, ‘안의섭’ 1건, ‘신동현’ 2건, ‘이상호’ 3건이 존재한다. 소설가 실명기사는 ‘한혹구’ 15건이 존재한다. 아동문학가 실명기사는 ‘강소천’ 1건이 존재한다.

(2) 농업분야조직 정보

『농민생활』에는 당시 농업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에서 발표한 실명기사들이 존재한다. 농업분야 관련 조직을 정부, 민관, 원조로 구분

하였다. 정부조직으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중앙농업기술원, 도 농사원, 농사원 소속 시군 농사교도소, 연구기관을 확인하였다. 4H운동 관련 조직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내 민관조직과 미국의 원조 관련 조직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민관조직은 4H구락부, 미국의 원조 관련 조직은 주한미경제조정처(USOM), 한미재단 및 4H조직을 확인하였다.

농업분야조직 중에서, 정부조직인 농림부 정보를 대표사례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표 8〉 농림부 조직 정보

조직명		기사제목	발행	기사 건	
농림부	농정국	제1 농정과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과 응자	1954년 8월	1	
		전작계	농촌조직	1955년 2월	4
			수도본답의 비료설계	1956년 6월	
			4292년도 미작회고	1960년 1월	
			벼 조파조식 재배	1960년 3월	
	전작계	풍토의 특이성과 보리	1959년 11월	1	
	농정국 기감 ⁸⁾		박하 호프·아주까리·삼·신서란	1957년 4월	13
			모내기와 밀거름 문제	1957년 5월	
			논에 물대는 요령	1957년 6월	
			홍수때 벼 다루기	1957년 7,8월	
			참외온상재배 체험기	1958년 4월	
			모내기가 늦었을때 못자리	1958년 5월	
			새로운 농약 마리치온	1958년 7,8월	
농약 포리돌유제사용법			1958년 9월		
벼의 병과 비료 관계			1959년 3월		
벼다수확과 품종선택			1959년 4월		
농지관리국		염해지에 벼 가꾸기	1959년 7,8월	1	
		저위생산지의 개량요령	1960년 2월		
		저위생산지의 개량	1960년 5월		
산림국		임업진흥	1955년 1월	3	
		금년도 조림사업계획	1956년 4월		
		송충이를 잡자 - 구제방법	1956년 7,8월		

8) 기감은 직급에 해당하나 기사 건의 비중이 높아 포함하였다.

	양정국	양곡행정	1955년 1월	1
	축정국	수의과	유축농업	1955년 2월
		위생계	소의 유행성 감기	1955년 10월
	중정국	내가 본 서독의 농촌	1956년 4월	1
	농업자재과	목욕탕 설계	1957년 1월	9
		규산비료로서 왕겨재	1957년 6월	
		질소를 얻는 녹비작물	1957년 9월	
		추락논과 그 개량방법	1958년 5월	
		병해와 식희 빨드액	1960년 7,8월	
		비료강좌 - 질소질비료	1961년 1월	
		비료강좌 - 인산질비료	1961년 2월	
		비료강좌 - 가리질비료	1961년 3월	
	비료강좌 - 자급비료사용법	1961년 4월		
	농업단체과	협동조합과 미국의 원조	1959년 1월	1
	원예과	7월의 과수원 주요행사	1954년 7월	16
		우리나라 농업경제 상으로 본 과수원예의 가치	1955년 2월	
		포도전지 자가원예의 기초	1955년 12월	
		6월의 과수 - 병충해 막기	1956년 6월	
		가을누에 - 뽕나무 가꾸기	1956년 7,8월	
		무의 모자이크병과 방제	1956년 10월	
		육묘와 채종		
		꿀벌의 일반적 관리(11월, 12월)	1956년 11월	
		감나무 재배에 대한 문제	1956년 12월	
		창의! 근로! 협동!	1957년 1월	
		재식거리와 간벌문제	1957년 2월	
		과수 - 새로운 약제 살포력	1957년 3월	
		과수 약제 살포력	1957년 4월	
		주요과수 적과의 요령	1957년 5월	
		감의 생리적 낙과방지	1957년 6월	
여름철 과수원의 토양관리	1957년 7,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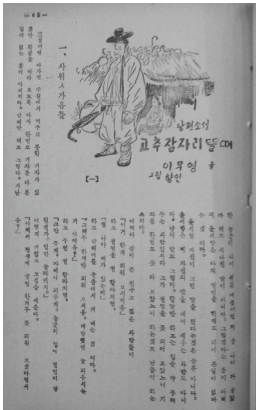
〈표 8〉의 ‘농림부’ 실명기사는 총 53건으로, 당시 존재했던 조직편성(농정국, 농지관리국, 산림국, 양정국, 축정국, 중정국, 농업자재과, 농업단체과, 원예과)의 일부와 각 조직의 관심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농민생활』의 연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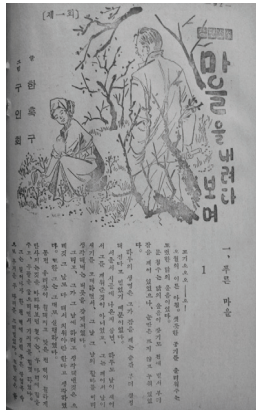
『농민생활』은 기록학, 국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치가 존재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농민생활』은 미발굴 문학예술작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를 열어줄 수 있다. 『농민생활』에는 1950, 60년대 창작된 총 194건의 문학예술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소설 32건, 시, 시조 38건, 희곡 1건, 만화 61건은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임에도 미발굴상태, 또는 현재까지 체계적인 연구 및 평가를 받지 못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설, 희곡, 만화 분야의 작가와 해당 작품 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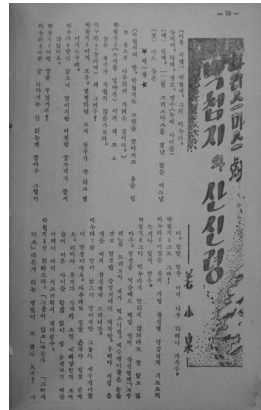
〈그림 1〉 이무영의 장편소설 '고추잠자리 뜰 때'(1955년 1월)



〈그림 2〉 한흑구의 장편소설 '마을을 내려다보며'(1956년 5월)



〈그림 3〉 강소천의 희곡 '크리스마스 박첨지와 산신령'(1954년 12월)



〈그림 1〉 이무영의 장편소설 '고추잠자리 뜰 때'는 『농민생활』 1955년 1

월부터 1956년 4월까지 15회 분량으로 최초 연재되었다. 이무영은 근현대 문학사에서 농민문학의 대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 2> 한혹구의 장편소설 '마을을 내려다보며'는 『농민생활』 1956년 5월부터 1957년 9월까지 15회 분량으로 최초 연재되었다. 한혹구는 근현대 문학사에서 수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활동했던 작가이다. '고추잠자리 뜰 때'와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두 작품에 관한 정확한 확인 및 관련 연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그림 3> 강소천의 희곡 '크리스마스극 박첨지와 산신령'은 최근까지도 발표지면과 시기를 추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출처 정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림 4> 김용환의 만화 '농사꾼 코주부' (1955년 7/8월, 9월)

<그림 5> 김성환의 만화 '서울구경'(1955년 12월)



<그림 4> 김용환의 만화 '농사꾼 코주부'는 『농민생활』 1955년 7, 8월부터 1955년 11월까지 모두 4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주인공 농사꾼 코주부를 통해 농촌계몽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농사꾼 코주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그림 5> 김성환의 만화는 『농민생활』

1955년 12월부터 1960년 7, 8월까지 모두 30회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내용과 주제는 주로 농촌계몽을 다루고 있다. 김성환은 대표작으로 ‘고바우 영감’이 있으며 김용환과 함께 한국현대만화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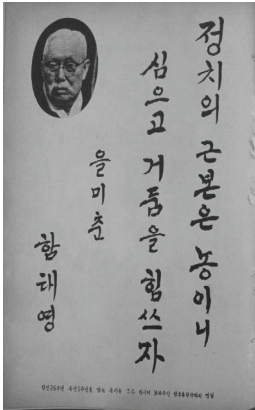
둘째, 『농민생활』은 주요 농업분야조직들이 한 곳에 담긴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 농민, 4H구락부, 학계, 기업을 포괄해서 당시 농업분야의 총체적인 활동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정부행정조직은 농림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중앙농업기술원, 농사원, 농사교도소의 활동이 나타나 있다. 농민은 전국 각지의 자영농, 기독교농민학원 졸업생의 활동이 나타나 있다. 또한 4H구락부를 통해 민관조직의 활동상이 발견된다. 학계는 전국 주요 대학의 농과대인 서울대 농과대(당시 수원 캠퍼스), 충남대, 충북대, 고려대, 동국대, 건국대, 전남대, 경북대, 진주농과대(현 경상대)의 교수들이 쓴 실명기사들이 존재한다. 농산물생산업체와 농약제조업체와 같은 농업 관련 기업이 나타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주요 농업분야조직과 『농민생활』의 관계

농업분야 정부행정조직 (농림부 외)	농민 (지역 자영농)	4H구락부	주요 대학	기업 (농산물생산, 농약제조)
『농민생활』 ↓ 주요 농업분야조직의 총체적 활동 아카이브 역할				

셋째, 『농민생활』은 잡지로서 개인들의 체험과 기억, 그리고 특정 기록을 담고 있다(윤경신, 2017, 15). 『농민생활』에는 공적인 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 농민들의 기록이 생생하다. 수록된 농민들의 수기에는 농민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기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또한 공적인 기록에서 찾기 힘든 정치인의 흔적이 증거처럼 보존되어 있다.

〈그림 6〉 ‘함태영 부통령
친필’(1955년 6월)



〈그림 7〉 ‘이승만, 이기붕 선거홍보물’
(1960년 3월)



함태영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이다. 『농민생활』 속간 1주년을 기념하여 “정치의 근본은 농이니 심으고 거둬들임 힘쓰자”라는 친필을 남겼다. 〈그림 6〉의 친필은 『농민생활』에서 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승만과 이기붕의 대통령, 부통령 입후보 정치홍보물이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정치행적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4. 잡지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

1)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 구성요소

(1) 일상 아카이브 구성요소 항목

『농민생활』에는 농민들이 스스로 남긴 기록과 농민들을 위한 계몽적

기록이 혼재되어 있다. 즉 농민들이 독자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기록을 발표하였으나 주체적으로 기록을 생산하여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농민생활』의 본문 기사들을 통해, 당시의 언어, 신앙, 여가, 농업 노동, 여성의 삶, 풍습, 의식주, 위생상태처럼 일상을 구성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농민생활』의 기사내용 중에서 차지하는 독자기사의 비율, 독자의 거주지 분포를 참고하여, 농민과 농촌의 일상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여 볼 때, 『농민생활』이 농촌사회와 농민의 생활상이 담긴 일상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기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농민생활』에 담긴 1950, 60년대 농촌사회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을 모두 12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한다. 유행한 언어, 신앙생활, 정치와 선거, 여가생활, 농업 노동, 여성의 삶, 풍습, 나라밖 세계, 의식주, 위생의 탄생, 역사관, 농촌계몽, 이 항목들이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농민, 농민운동가, 대학교수, 학생, 의사, 기자, 문화예술인, 정치인, 정부조직, 민관단체, 잡지광고 등을 통해 생산된 기록이다. 즉 농촌사회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표 10〉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 아카이브 구성요소

시리즈(12개) series	하위시리즈(29개) subseries	기사 건(80개) item
1. 유행한 언어	1.1 슬로건	정치구호 종교구호
	1.2 용어	일상용어
2. 신앙생활	2.1 기독교	논단
		종교수필
		머리말
		논설

3. 정치와 선거	3.1 선거	대통령 선거 홍보물		
	3.2 정치인	박정희		
	3.3 정치적 사건	4.19 5.16		
4. 여가생활	4.1 만화	김용환 김성환 신동현 안의섭 김경섭		
		4.2 노래	농부가(농민행진곡) 새 봄이 왔네 농민의 노래 - 새일꾼과 새노래 국토건설대 노래	
			4.3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와 한국농촌
			4.4 라디오	한국농민과 라디오 라디오와 농촌문화건설의 기본과 제
	4.5 광고	비락 우랑아		
	4.6 독서	독서의 계절 애독자쌀롱 - 독서		
	4.7 농한기	농한기를 이용한 들쥐 구제		
5. 농업 노동	5.1 농번기	농번기의 소의 사료		
	5.2 4H구락부	4H구락부 활동		
6. 여성의 삶	6.1 여성상	농촌부인들이 하여야 할 몇 가지 만화 - 도시여성과 농촌여성 여자부원들은 무엇을 할까? 미신과 농촌여성 주부자치 - 정월의 설계 주부의 생활 - 손님접대용 식사 와 요리 기독교농민학원 여자강습생 모집 농번기의 공예품		
7. 풍습	7.1 남녀관계	남녀차별 남녀동등 팬팔		
	7.2 가족계획	산아제한에 대하여 가족계획		
	7.3 결혼식	결혼식 타령 결혼식복의 어제 오늘 내일		
	7.4 장례식	상복의 간소화		
	7.5 아동	어름생활		

8. 나라밖 세계	8.1 유럽	서독
		아이슬랜드
9. 의식주	9.1 의복	벨져나라
		노동복
		농촌부녀자의 활동복
		부녀자의 작업복 만들기
	9.2 음식	어린이 옷
		육류 대용이 되는 낙화생 빠다 만드는 법
		농한기의 식사
		농번기에 편리한 보존음식
		나의 식생활
	9.3 집	추석음식
		아궁이
		목욕탕 설계
조리대 만드는 법		
10. 위생의 탄생	10.1 가정위생	찬장 만드는 법
		내가 지은 보건주택
		회충
		결핵과 농촌
		동상을 막자
		인분비료와 기생충
		나병에 대하여
		변소
		음식물로 병 고치는 법
		가정상비약
11. 역사관	11.1 3.1운동과 8.15해방	3.1독립정신과 우리농민
		3.1정신의 등불
		8.15의 교훈과 우리들의 자각
12. 농촌계몽	12.1 자녀교육	지덕체 자녀교육
		어린이 지적지도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자
	12.2 농촌계몽	만화 - 문맹의 죄
		우리가 한 농촌계몽
		농촌계몽과 그 소감

〈표 10〉의 일상 아카이브 구성요소는 계층적으로 분류하였다. 국가 기록원의 분류 표준을 참고로 하였는데, 분류의 계층구조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에서 가장 구체적인 개념으로 전개하였고, 기록의 내용을 반

영하는 분명한 용어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이철편, 2011, 29). 이러한 원칙하에, 시리즈와 하위시리즈는 기사내용 분류에서 나타난 주제와 『농민생활』의 기본성격인 농민을 주 독자층으로 한다는 점, 문예지로서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농촌계몽의 추구, 기독교적인 가치 추구를 반영하여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 아카이브는 일반적인 개념을 담은 최상위 단위를 시리즈로 정하였으며,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시리즈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하위시리즈는 총 2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 아래 최하위 단위는 기록건을 의미하며 총 80건의 기사로 구성하였다. 기록건의 경우는, 상위시리즈-하위시리즈에서 적용한 분류원칙이 개별 기록의 내용과 기록건과 건의 관계에서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다(설문원, 2011, 245).

2) 일상 아카이브 구현

『농민생활』은 1950, 60년대 농촌사회의 모습과 농민들의 일상생활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상 아카이브이다. <표 10>의 내용 일부를 대표 사례로 수록하였으며, 각각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전개하여 <표 10>의 순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행한 언어

유행한 언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언어로서, 넓게는 한국사회, 좁게는 농촌사회에서 통용된 용어들을 가리킨다. 유행한 언어는 슬로건(slogan)과 용어로 나눈다.

① 슬로건 - 정치구호

슬로건에는 정치구호가 있다. 정치구호는 ‘우리의 맹세’라는 글에서 나타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시자
 - 우리는 백두산령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 〈『농민생활』 1954년 11월〉

‘우리의 맹세’는 1954년 11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렸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애국심 강조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한국 전쟁이 불러온 외상이 그대로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는 반공주의의 형성이며, 셋째는 이승만 시대 북진통일론의 흔적을 알 수 있다.

② 슬로건 - 종교구호

슬로건에는 종교구호가 있다. 종교구호는 ‘삼애정신’이라는 표어에서 표출된다.

- 하나님을 사랑하라, 농촌을 사랑하라, 노동을 사랑하라.
- 〈『농민생활』 1967년 6월〉

‘삼애(三愛)정신’은 하나님/농촌/노동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 농민학원의 초대원장인 배민수 박사가 주창하여 오랫동안 기독교농민학원의 정신적인 토양으로 작용하였다. 삼애라는 표현은 『농민생활』 1958년 11월 삼애통신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는 기독교농민학원 졸업생들이 삼애동지회를 결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현재까지도 기독교농민학원 출신 생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애정신이라는 종교구호가 끼친 깊은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③ 용어 - 일상용어

용어는 일상용어를 가리킨다. ‘일상용어’는 다양한 용어관계를 설정하여 어휘를 통제하는 시소러스(thesaurus)를 활용한다(이재마, 2011; 윤주범 외, 2013). 시소러스의 기능은 “동일한 개념의 상이하게 표현된 용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윤주범 외, 2013, 103). 이를 통해 일상 아카이브로서 『농민생활』의 내용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농민생활』에 나타난 일상용어 중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용어 간의 관계와 용어표기의 시기변천을 다루고자 한다. 일상용어는 일반주제인 국가와 도시, 의식주/교통, 농업, 문화, 기타로 나누었으며, 용어표기의 변천은 『농민생활』이 발간된 1950, 60년대와 2020년 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와 도시 시소러스를 대표 수록하였다.

〈표 11〉 국가와 도시 시소러스⁹⁾

01. 국가와 도시 / 시기			비고	
대표어 USE	구라파	1950, 60년대		
비대표어 UF	서구라파			
관련어 LT	서유럽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노르웨이	1950, 60년대		
관련어 LT	노르웨이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뉴-지랜드	1950, 60년대		
관련어 LT	뉴질랜드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룩셈버-크	1950, 60년대		
관련어 LT	룩셈부르크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멕시코우	1950, 60년대		
관련어 LT	멕시코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베르린	1950, 60년대		
비대표어 UF	서부베르린			

관련어 LT	베를린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벨즈나라	1950, 60년대		
비대표어 UF	벨즈국			
관련어 LT	벨기에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불란서	1950, 60년대		
관련어 LT	프랑스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쏘련	1950, 60년대		
관련어 LT	소련		이후어	2020년 현재
관련어 LT	러시아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스위스랜드	1950, 60년대		
관련어 LT	스위스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아이스랜드	1950, 60년대		
비대표어 UF	아이스랜드 국			
관련어 LT	아이슬란드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오-스로	1950, 60년대		
관련어 LT	오슬로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월남	1950, 60년대		
관련어 LT	베트남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중공	1950, 60년대		
관련어 PT	자유중국		이전어	
관련어 LT	중국		이후어	2020년 현재
관련어 LT	중화민국		이후어	2020년 현재
관련어 LT	대만		이후어	2020년 현재
대표어 USE	화란	1950, 60년대		
관련어 LT	네덜란드		이후어	2020년 현재

〈표 11〉은 국가와 도시에 해당하는 명사 시소러스이며 대표어는 모두 15개이다. 나열된 국가와 도시명은 당시에는 일상어로 사용되었지만, 2020년 현재는 표준어와 표기가 모두 바뀌었다. ‘비대표어’는 대표어를 대신해서 함께 사용되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표어 구라파와 혼용해서 서구라파를 일상어로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어’는 관련어로서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의미한다. 대표어 중공을 사용하던 시절 관련어로서 자유중국이라는 표기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중공은

9) 해당 표에서 사용한 영어약자의 원 표기는 다음과 같다. USE(Use): ~를 사용, UF(Used For): ~대신 사용, PT(Prior Term): 이전어, LT(Later Term): 이후어(윤주범 외, 2013, 107).

중국으로, 자유중국은 정식국호인 중화민국으로 지칭하지만 대만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중국은 이전어로 남았다. 위 내용에는 중국어에서 빌려와 표기한 음역어(音譯語)가 있다. 구라파(歐羅巴)는 서유럽을, 불란서(佛蘭西)는 프랑스를, 화란(和蘭)은 네덜란드의 별칭인 Holland(홀랜드)를, 월남(越南)은 베트남을 가리키는 중국어 음역표기이다.

(2) 신앙생활

『농민생활』에는 기독교 관련 내용과 관점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 자기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함이 된다면 자기가 살려는 것이나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나 그 돈으로 교회를 돕고 주린 자를 먹이고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파괴된 농촌을 재건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는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위함이다. …

… 그러나 오늘에 농촌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이 피폐하여 농민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감으로 농촌의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회에는 많은 변동이 가져오게 되었다. … 이러한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교훈과 정신을 농촌교회에서 살려서 농촌교회의 새로운 부흥책과 농촌사회의 진흥책을 강구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농촌이 살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키도록 해야겠다.

…

〈논단 '신앙생활과 물질생활' 『농민생활』 1955년 5월, 6월〉

위 내용은 첫째, 기독교가 현실의 삶과 무관한 종교가 아니라 농촌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전하고 있다. 둘째, 농촌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을 살리자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신앙생활

과 물질생활이라는 논단은 기독교가 피폐한 농촌 현실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3) 여가생활

여가생활은 농민사회의 주된 삶인 노동과 구별되는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농민들이 향유하던 여가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농민생활』에서는 크리스마스 달력을 제작해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그림 8〉 ‘크리스마스 달력’
(1959년 12월)



〈그림 8〉에는 정장과 한복 차림의 한국인 가족과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서양인 가족이 다정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한때를 즐기고 있다. 하단에는 “우리 가족들은 자유세계 사람들과 같이 명절을 마음대로 즐긴다”라는 문구가 있고, 하단 우측 로고에는 “받드는 미국의 힘, 평화 재건 위하여”라는 표어가 적혀 있다. 따라서 그림 속 ‘서양인 가족’이 ‘미국인=미국=자유세계’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로는 달력에 단기와 서기가 병기되어 있다.

(4) 여성의 삶

여성의 삶은 농촌여성들이 매일매일 겪는 생활상을 말한다. 당시 여성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 우리 주부가 세우는 계획은 주부와 떠날 수가 없는 살림살이의 계획일 것이며 그중에는 중요한 것은 하루에도 세 번씩 빼놓지 않고 먹어야 할 음식의 계획일 것입니다. … 일년을 열두달로 나누어 그달에 중요한 행사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음력을 표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월 정월음식, 二월 간장, 고초장 담그기, 三월 한식 성묘음식, 부활절음식, 四월 조기젓 담그기, 五월 단오 놀이음식, 마늘 장아찌 담그기, 六월 유월유두, 오이지 담그기, 七월 七월 七석, 八월 추석 놀이음식, 九월 계젓담그기, 十월 상달 떡해먹기, 김장담그기, 十一月 동지 팔죽 쑤어먹기, 크리스마스 음식 준비, 十二月 정월음식준비 …

우리가 해야만 할 행사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무난히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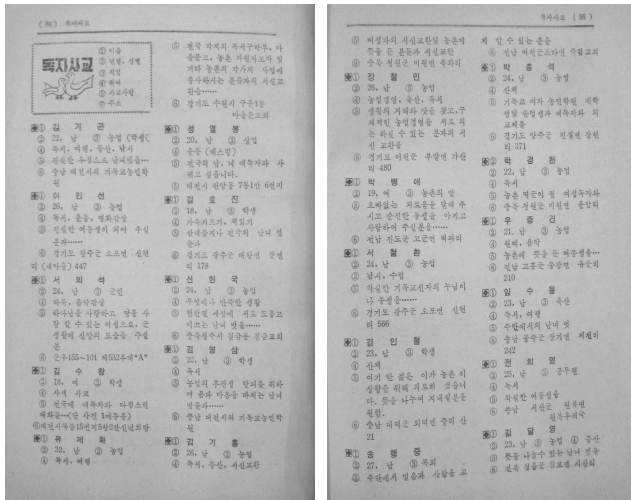
(주부자치 ‘정월의 설계’ 『농민생활』 1957년 1월)

위 내용에는 농촌주부의 살림계획 중에서 최우선이 음식이며, 주부가 한 해 동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월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기독교 명절인 부활절 지키기,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한다는 점은 해당 글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살림계획을 지키는 것이 농촌주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5) 풍습

농촌사회와 농민들이 공유하던 풍습의 일면 중, 결혼하지 않은 남녀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9〉 '독자사교'(1967년 6월)



〈그림 9〉는 '독자사교'란으로서 전국에 있는 남녀독자들이 서로 편지

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펜팔코너이다. 위 내용을 다시 제시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독자사교에 나타난 서신교환 대상

이름	원하는 서신교환 대상 내용	나이/성별
김**	전국에 애독자와 다정스런 대화를...(단 사진 1매 동봉)	18/여
박**	오빠 없는 외로움을 달래 주시고 순진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실 분을...	19/여
김**	진실한 우정으로 남녀벗을...	22/남
이**	진실한 여동생이 되어 주실 분과	26/남
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여성으로, 군 생활에 신앙의 도움을 주실 분	24/남
유**	전국 각지의 독서구락부, 마을문고, 농촌 지원지도자 및 기타 농촌의 각가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서신교환을...	32/남
성**	전국의 남, 녀 애독자와 사귀고 싶습니다.	20/남
김**	삼애동지나 전국의 남녀 벗들과	18/남
신**	험한 길 세상에 서로 돕고 이끄는 남녀 벗을...	24/남
김**	농업의 후진성 탈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남녀 벗들과...	22/남
김**	여성과의 서신교환 및 농촌에 뜻을 둔 분들과 서신교환	26/남
장**	생활의 지혜와 맛을 찾고, 구체적인 농업경영을 서로 의논 하실 수 있는 분과의 서신 교환을	26/남
서**	착실한 기독교신자의 누님이나 동생을...	24/남
김**	여기 한 젊은 이가 농촌 이상향을 위해 외로히 섰습니다. 뜻을 나누며 지내실 분을 원함.	23/남
송**	주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교제 할 수 있는 분을	27/남
박**	기독교 여자 농민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애독자와의 교제를	24/남
탁**	농촌 역군이 될 여성독자와	22/남
우**	농촌에 뜻을 둔 여동생을...	21/남
임**	주안에서의 남녀 벗	23/남
전**	착실한 여동생을	25/남
김**	뜻을 나눌 수 있는 남녀 벗을	23/남

<표 12>를 보면, 여성 2명, 남성 19명 모두 21명의 남녀 개인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여성의 나이는 18~19세이고, 남성의 나이는 18~32세로 폭이 넓지만 대부분 20대 초중반이다. 남녀가 원하는 독자사교의 서신

교환 대상은 다양하다. 첫째는 이성교제 대상, 둘째는 기독교 신앙을 나눌 대상, 셋째는 직업농민의 뜻을 둔 사람들 대상이다. 편지라는 매체가 남녀관계,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농민생활』이 기독교 신앙인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6) 나라밖 세계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고 쓴 농촌 관련 내용과 감상들을 살펴본다.

… 필자가 방문한 로텐베루히라는 인구 800명 정도의 농촌에서는 … 여하튼 농촌이나 도시민이나 근면하고 질소(質素)하고 물자의 절약에 힘을 많이 쓰며 인내생활(忍耐生活)을 하여 가면서라도 국가재건에 국가정책에 도시민이나 농민이 전력을 기우리고 있다는 실감을 절실이 느끼었다. … 도시에나 전원에서나 철도에서나 남녀노소 없이 묵묵히 검소한 채 팀으로 국가재건을 위하여 땀 흘리는 광경을 도처에서 목전할 때 스스로 머리가 숙으려졌다.

〈내가 본 서독의 농촌 『농민생활』 1956년 4월〉

…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의 그 숨은 노력이다. 메마른 모래땅을 꽃피는 푸른들판으로 변하게 한 그들의 열심히는 근면정신과 질서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불굴의 끈기력이 오늘과 같은 정화를 초래케한 것이다. 고역적인 농민들의 육체노동을 경주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원래 벨즘국은 … 산림 소택지나 황폐한 땅 뿐이었다. … 개간 간척사업 등을 하여온 시대를 거쳐 오늘과 같은 옥토를 만들어 노은 것이다. …

〈내가 보고 온 서구농업 벨즘나라 중심의 농업 『농민생활』 196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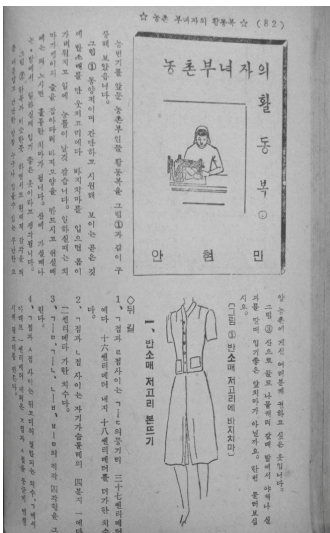
위 내용은 유럽의 서독(통일 전 독일), 벨즈나라(벨기에)를 방문하고 관찰한 점을 쓴 것이다. 서독과 벨즈나라에서는 근면과 검소의 가치, 전쟁의 폐허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행해지는 국가재건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머리가 숙으러졌다”, “기억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외국을 향한 선망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7) 의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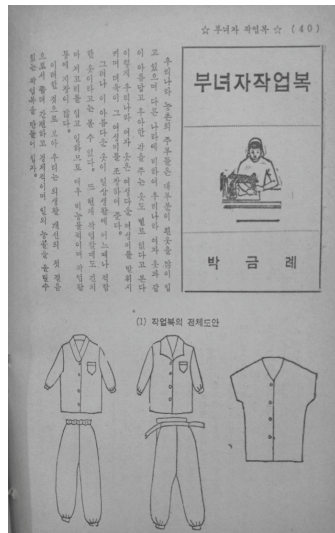
농촌사회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의복과 음식을 살펴본다.

① 의복

〈그림 10〉 ‘농촌부녀자의 활동복’(1957년 6월)



〈그림 11〉 ‘부녀자 작업복’ (1960년 11월)



〈그림 10〉, 〈그림 11〉은 여러 장의 삽화를 함께 실어 의복을 실제 제작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다. 농촌여성에게 작업복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 내용과 같이 ‘현재 작업할 때 입는 긴치마 저고리가 비능률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주부들은 대부분이 흰옷을 많이 입고 있으며 …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옷이 일상생활에 어느 때나 적합한 옷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현재 작업할 때도 긴치마 저고리를 입고 일하므로 매우 비능률적이며 작업활동에 지장이 많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의생활 개선의 첫 걸음으로서 좀더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작업복을 만들어 입자. …

〈‘부녀자의 작업복 만들기’ 『농민생활』 1960년 11월〉

② 음식

… 음식의 예를 들면 겨울준비의 김치, 깎두기, 무장아찌, 무시래기 말린 것, 풋고추장아찌, 고추엿장아찌 등이고 잘하면 달걀찌개가 상에 놓일 수 있으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 장날이나 혹은 명절에 고기종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으로 사는 이의 표준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엿을 고아 먹는다든가 고구마를 찌거나 구어서 먹는 때가 많고 가끔 떡해 먹기, 감주해 먹기 등이 간식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농촌 살림살이의 음식의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한기의 식사’ 『농민생활』 1957년 2월〉

위 내용에서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찾을 수 있다. 매일 먹는 음식과 명절 음식으로 구분해 보았다. 김치와 장아찌류와 같은 반찬은 평상시 먹을 수 있고, 달걀과 고기류는 장날과 명절

같은 특별한 경우에 먹는 음식이었다. 간식으로는 엿, 고구마, 떡, 감주가 있었다.

… 제가 주장하고 또 실천하는 빵식은 외관이나 구미가 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서민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고 … 한국농민이 밥을 많이 먹어 단백질의 필요량 80그램을 섭취하고 나머지 전분을 낭비하고 위장병만 얻은 이유를 알만하며 … 하루바삐 쌀 편식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 우리집은 아침을 빵식으로 하므로 이전에 시간 반이나 걸리던 식사준비를 십오분이면 족하고 … 빵은 매일 아침 하루 건너 점심도 빵 어린이들 학교 도시락도 빵은 매우 편한 것입니다. …

〈나의 식빵생활 『농민생활』 1960년 9월〉

위 내용은 한 남성이 밥 위주의 식사를 식빵으로 대체하기 위해 직접 식빵을 만들며 쓴 것이다. 식빵을 밥 대신 선택한 이유가 첫째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쌀 편식에서 벗어나고, 둘째는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8) 위생의 탄생

농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위생개념, 위생상태, 위생에 얽힌 일화 등을 접할 수 있다.

… 기생충들은 … 뱃속에서 와글와글하고 마음대로 작란질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의 뱃속은 마치 이러한 기생충들의 운동장으로 되어있는 셈입니다. 전란으로 생활은 여지없이 빈궁하여져서 영양이라고는 하루 세끼 강밥에 김치쪽으로 겨우 겨우 얻어먹는 판에 수많은 기생충에게까지 도적을 맞고 보니 … 이 회충과 십이지장충

(채독충)은 다행히 뽑아 버리기 쉬운 것이오니 … 국민병의 하나인 기생충병을 없애고 세상에서 기생충의 나라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하루 속히 씻어 버리도록 …

〈'회충과 채독의 예방' 『농민생활』 1955년 5월〉

위 내용은 한국전쟁 직후 기생충이 '국민병'이 되었다는 점과 '기생충의 나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위생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는 일로 대소변물을 처리하는 일도 되고 또 비용 드리지 않고 농작물에 보다 낳은 것이 없는 좋은 비료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소변물에는 여러 가지 병원도 있기 쉽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충의 알이 무수히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 특히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주둔해 있으면서도 채소일체를 한국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한국에서 채소를 재배할 때 인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인분비료와 기생충' 『농민생활』 1957년 9월〉

당시 농촌에서는 대소변을 발작물의 비료로 널리 사용했으나 그로 인해 작물에 기생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위생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이 한국산 채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나온다. 한국인과 유엔군 사이에 존재하는 위생개념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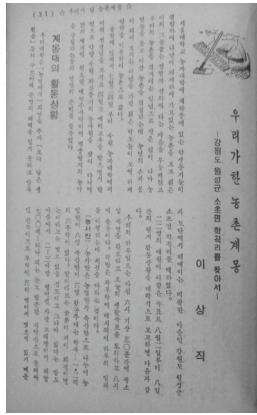
(9) 농촌계몽

한국전쟁 이후 지역에서 펼쳐진 봉사단체와 대학생들의 농촌계몽활동 현장을 접할 수 있다. 충남과 강원지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농촌순회계몽대 활동'(1956년 2월)



〈그림 13〉 '우리가 한 농촌계몽'(1958년 10월)



〈그림 14〉 '농촌계몽과 그 소감'(1961년 11월)



〈그림 12〉는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충남의 농촌지역에서 펼쳤던 '농촌순회계몽대' 활동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당시 진행된 한글강의, 가축질병 예방교육, 아동질병치료, 영화상영이 담겨있다. 〈그림 13〉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들이 강원도 원성군에서 펼친 농촌계몽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계몽활동의 목적과 농촌으로 떠나는 결연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림 14〉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암농촌활동반 남녀학생 40명이 충남 서산에서 진행한 농촌계몽활동 내용 및 소감을 사진과 함께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을 보면, 낮 시간대에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내용, 밤 시간대에 성인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내용이 생생하다.

... 여학생들도 밭을 매며 논에 물도 푸고 어린애를 돌보며 마을 처녀들에게 재봉 수예를 가르치기도 한다. 오후 한시부터는 시골아동들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문예·공작·무용·과학·서예·미술·음악·수예·체육반으로 나누어 ... 밤이 되면 10리가 넘는 산길들

을 넘어, 저녁강좌에 나가서 마을 청·장년들과 부녀자와 현 한국 실정과 농민들이 가져야 할 태도·한국의 역사와 농민의 위치·농가부업·산아제한·자녀교육·생활개선·농업 및 그 관계분야 향토건설사업 등 광범한 문제를 강연·토론·또는 좌담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

〈'농촌계몽과 그 소감' 『농민생활』 1961년 11월〉

5. 결론

『농민생활』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농민생활』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1950, 60년대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목소리, 각지에서 펼쳐진 소규모 농업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민생활』에는 기독교농민학원 수강생, 졸업생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렸는데, 이는 대전지역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950, 60년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인명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요인물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정치인, 농업학자, 농민운동가, 대학교수, 의사, 기자, 만화가, 소설가, 아동문학가이다. 이러한 인명 정보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 『농민생활』의 참여인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둘, 『농민생활』이 실용적인 농업기술전파와 대중적인 문예잡지를 종합적으로 추구했음을 알려준다.

셋째, 1950, 60년대 농업분야의 다양한 조직을 알 수 있었다. 농업분야 조직으로는 정부조직, 민관조직, 미국원조 및 4H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정부조직인 농림부의 조직 정보를 제시하였다.

넷째, 기독교잡지, 문학, 예술분야에서 오기, 누락, 추정에 의존하는 기록들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그동안 일부 기독교 잡지 연구에 부정확하게 표기된 『농민생활』의 창간일과 폐간일이 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이무영과 수필가 한혹구의 장편소설을 살펴 보았는데, 앞으로 정확한 조사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아동문학의 기틀을 세운 강소천의 경우는 발표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발표지면조차 불확실하던 작품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의 양상을 총 12개의 시리즈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사를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시리즈-하위시리즈-아이템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80개의 아이템으로 일상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1950, 60년대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농촌사회와 농민의 삶을 대상으로 일상 아카이브를 보여주고자 했으나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농민생활』에 남아 있는 기록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직업인들과 정부의 농업분야조직에서 농민들을 계몽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농민들이 남긴 기록은 적은 편이다. 농민들이 한국전쟁 직후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그 안에서 서로 연대의식을 표출했으나, 잡지의 독자로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농민생활』의 내용들 속에서 파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일상의 요소들을 찾아 분석하였으나 폭넓은 일상을 담기에는 협소한 면이 있을 것이다. 향후 『농민생활』이 1950, 60년대 농촌사회와 농민의 일상세계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작은 아카이브와 잡지를 통한 일상의 접근 가능성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쌓인 보통사람들의 삶, 기억, 발자취, 궤적이 기록물로서 더 풍성하고 심층적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농민생활』 1954년 6월~1967년 6월, 16(1)~29(6).

〈2차 자료〉

- 곽건홍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 3-35.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곽건홍 (2012). 한국의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자들의 기록. 2012년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12.
- 곽건홍 (2015). 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189-217.
- 김상신 (2016). 젠킨슨과 셀렌버그의 기록학 이론 비교연구. 기록학연구, 50, 61-95.
- 김익한 (2012). 일상 아카이브의 미래를 여는 단상들. 2012년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8-43.
- 김주평, 임종빈 (2000). 기독교에 관련된 한국의 잡지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21, 145-168.
- 김하나 (2019). 걷기 아카이브.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김홍수 (2010).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년대의 기독교연합사업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81-108.
- 남경호 (2005). 시사만화의 기록학적 관리방법론: 정리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기록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0. 5. 2). 대전충남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보도자료.
- 박선지, 임은혁 (2017). 1960년대 『새농민』 표지에 표상된 여성 이미지.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7(4), 39-48.
- 박태일 (2014). 1930년대 평양 지역문학과 『농민생활』. 2014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337-364.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심성보 (2011). 일상 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5, 93-109.

- 안병직 (2006). 서양사에서의 일상사 연구 동향: 나치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9, 221-240.
- 연규홍 (1999).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대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 오윤택 (2014). 일상아카이브 방법론을 통한 새로운 대학기록 수집방안: 학생공동체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
- 윤경선 (2017). 잡지 컬렉션 조직에 관한 연구: 월간 《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
- 윤주변, 김연주, 송혜현, 김재훈, 정민경 (2013). 영구기록물 정리·기술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 이상민 (2003). 아키비스트 윤리규약과 논평. *기록학연구*, 7, 199-214.
- 이승억 (2018). 기록의 평가선별: 영구 보존할 기록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한국 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은글터, 175-216.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점마 (2011). 기록분류·조직. *기록관리총서*, III.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 이형희 (2018). 지역문화잡지의 지역아카이빙 활동과 발전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
- 임진희 (2011). 일상 아카이브즈 구축방안. *국제한국학연구*, 5, 11-128.
- 전영주 (2019). 평양잡지 『농민생활』 문예란과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 *국제언어문학*, 44, 217-243.
- 한규무 (2010).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109-132.
- 홍창수 (2018). 강소천의 아동희곡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3, 309-341.